



2022 ISSUE PAPER 1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사례 및 활용 가능성 탐색: 가상화폐와 NFT를 중심으로

장윤주 | 장혜원 | 박다운

2022.03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이슈페이퍼 저자 프로필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박사과정



- 장윤주, (2021). 비영리조직 최고관리자 경험에 관한 연구. 아름다운재단.
- 노연희, 이민영, 장윤주, (2019). 기빙코리아2019: 비영리조직 최고관리자 분석: 1990~2018, 기부문화 연구소
- 전현경, 이영주, 장윤주, (2017). 국내 비영리조직 투명성에 관한 인식 조사, 아름다운재단.

장혜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 장혜원, 최하영, (2021). 학령기 자녀를 둔 남성한부모의 어려움-초등학생 자녀와 중·고등학생 자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8(4), 35-67.

박다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 유수정, 송현주, 박다운, 황연재, (202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3(2): 69-92.

목 차

1. 조사 개요	4
2. 핵심 용어	5
3.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부 활동 사례	7
1) 가상화폐 기부	7
①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여 기부	7
② 가상화폐 자체를 기부	8
2) 플랫폼 활용 사례	9
① 블록체인 기반 전문 모금 플랫폼	9
② 캠페인의 활용	11
③ 해외 사례	12
3) NFT	12
① NFT 작품 판매 수익금 기부	12
② 기부참여 리워드 사례	15
③ 해외 사례	16
4. 결론 및 논의	18
1) 가상화폐 기부 현황	18
2) NFT 활용 현황	18
3) 가상화폐와 NFT 활용 가능성	19
4) 논의와 해결 과제	11
별첨	23

1. 연구 개요

비영리조직이나 모금활동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나 가상화폐 기부가 크게 주목받았다. 2018년 기준 국내 블록체인 관련 기부 사례로 Lonate의 기부 플랫폼, 사단법인 피난처의 비트코인을 통한 기부시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한 W재단 HOOXI 프로젝트 등 4개의 국내 시도가 소개되었다.¹⁾ 이 외에도 팬임팩트코리아의 스마트 SIB, 카카오 그라운드X의 블록체인 포 소셜 임팩트 컨퍼런스 (Blockchain for Social Impact Conference), 노원구 지역화폐 ‘노원(NW)’도 좋은 일을 위해 사용되는 블록체인의 사례로 소개 되었다.²⁾

2014년 사단법인 피난처의 첫 비트코인 기부 이후 언급된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시도는 2018년을 절정으로 아쉽게도 큰 주목에 부합하는 성과나 지속성을 담보하지는 못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NFT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NFT 자체를 기부하거나 판매하여 기부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기부 플랫폼과 공익을 위한 협업이 시도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블록체인 활용, 가상화폐기부와 NFT 활용 국내 사례를 정리하고, 이 새로운 기술이 향후 좋은 일을 위해 활용 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모금조직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정리해 보았다.

- 조사기간 : 2022년 1월~2월
- 조사방법 : 네이버, 빅카인즈, 구글에서 ‘가상화폐 기부’, ‘NFT 기부’ 를 키워드로 2018년 1월~2022년 1월 기사 검색하여 49개 기사를 활용함.

1) 강형구, 신은정. (2018). 기획연구2018: NPO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사례 연구 및 적용방안.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 기부문화연구소 블로그. 2018.07.29. “블록체인 기술은 좋은 일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Blockchain For Good)”

2. 핵심 용어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관리, 저장, 거래되는 과정을 중앙 서버에 집중시키지 않고 암호화하여 분산 저장한 시스템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를 분산하여 저장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에 저장된 정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고,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아 처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사업을 효율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다.

블록체인과 함께 가상화폐와 NFT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웹의 진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웹1.0은 야후, 네스케이프와 같이 초창기 인터넷 환경이다. PC 기반으로 읽기만 가능하다. 예전 홈페이지를 생각해 보면,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여 사용자 입장에서는 읽기만 가능하지 상호작용은 가능하지 않았다. 웹 2.0은 스마트 폰이 등장하면서 SNS 중심의 참여형 플랫폼으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 사용자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글을 쓰고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다. 여기에 불만이 제기된다. 제작물의 소유권은 참여자에게 있는데 왜 플랫폼 기업들만 막대한 이익을 가지는가? 이를 해결하고자 웹 3.0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웹 3.0은 블록체인 기술이 핵심으로, 읽기 쓰기 뿐 아니라 참여물을 소유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분산시켜 해킹으로부터 자유롭고, 데이터 소유권을 플랫폼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권한을 제공할 수 있다. 요약하면, 참여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탈중앙화 웹 생태계이다.

Web 1.0	Web 2.0	Web 3.0
PC 읽기	스마트폰 읽기 / 쓰기	블록체인 읽기/쓰기/소유

출처 : 메타버스, NFT, P2E가 합쳐진 Web3.0이란?(웹3.0). 미래채널 MyF

웹3.0의 예로 P2E 게임을 들 수 있다. 게임에 열심히 참여해서 코인을 벌거나 아이템을 사고 팔아 수익화 할 수 있다. 블록체인기반의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더 샌드박스(The Sandbox Game)의 경우도 땅이나 아이템을 사고팔수 있게 해서 참여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파는 기술이 NFT(Non-Fungible Token)이다.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NFT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고유한 디지털 수집품’이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수집하는 이유에는 투자, 투기, 애착, 강박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수집의 핵심은 희소성이다.³⁾ NFT는 실물에서의 수집을 디지털에서 구현한 것으로, 영상, 음원,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파일에 대한 소유

3) 맷 포트나우·큐해리슨 테리. 2021. *NFT 사용설명서*. 여의도책방.

권을 보증하는 디지털 증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 가치가 다른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거래이력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기술이 웹 3.0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탈중앙화 되어 거래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를 계산하고 기록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코인이 필요하다. 코인은 웹3.0에서 플랫폼마다 화폐의 역할을 하고, 플랫폼 참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 역할, 그리고 해당 플랫폼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참정권의 역할을 한다.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웹3.0을 구동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이더리움 시스템이다. 이더리움은 스마트계약 시스템이 있어 이 생태계 내에서 앱, 서비스, 게임 등을 런칭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나 iOS에 각종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웹 3.0이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 관련 코인을 구매하고 지갑을 생성하는 것이 필수이다. 느린 처리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싼 수수료(Gas Fee: 전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각 플랫폼에 필요한 코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환전을 하고 환전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가상자산인 코인, NFT, 가상부동산의 경우 가치 변동이 크다. 책임을 지는 주기관이 없으므로 개인 책임이 증가한다. 즉, 웹 3.0은 개인에게 혜택도 많지만 신경쓸 것도 많다는 어려움이 있다. 대중화되기엔 아직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도 있다.⁴⁾

- 암호화폐(cryptocurrency) : 암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디지털 화폐.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이 없이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상화폐(virtual money)라고도 한다.
- 코인 :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코인 형태의 암호화폐는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가상화폐이다.
- 토큰 :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로, 다른 코인의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4) 미래채널 MyF. 2022.01.20. “메타버스, NFT, P2E가 합쳐진 Web3.0이란?(웹3.0)” 요약
<https://www.youtube.com/watch?v=bN-M-FBHrCU>

3.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부 활용 사례

1) 가상화폐 기부

①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여 기부

가장 많은 사례로, 가상화폐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현금으로 기부 받는 경우이다. 직접 수령하지 않고 현금화해 받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째, 현금과 현물 이외 다른 자산을 기부 받은 경험이 없어 이로 인한 행정부담이 수반된다. 많은 조직들이 주식조차 기부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계좌나 지급 개설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로는 가치 변동성이다. 거래 시점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 플러스 판매시점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대표로 가상화폐가 일종의 투기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으로 인해 가상화폐 수령 자체가 모금단체의 이미지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기부자에게는 가상화폐를 매도해 현금으로 기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모금단체 입장에서는 가장 용이한 수령 방법일 것이다.

-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59이더리움 기부의를 밝혔을 때, 병원 측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현금으로 약 1억6000만 원을 기부받기로 결정.⁵⁾
-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스트'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포항지진 이재민 성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쿼텀을 기부.⁶⁾
- 비즈니스 영어 전문학습 서비스 '비네이티브(BeNative)'를 운영하는 스마투스가 환경재단에 가상화폐 '비네이티브토큰' 1%를 기부.⁷⁾

5) 동아일보 2021.04.27. “‘기부’ 문 두드리는 가상화폐… 가격변동성 커 모금단체들도 고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27/106624333/1>

6) 동아일보 2021.04.27. “‘기부’ 문 두드리는 가상화폐… 가격변동성 커 모금단체들도 고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27/106624333/1>

7) 조선일보 2019.08.07. “스마투스, 환경재단에 가상화폐 기부”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7/201908070002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② 가상화폐 자체를 기부하는 경우

모금조직 명의로 지갑을 만들어 가상화폐를 직접 기부 받는 경우로, 기부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경우와 가상화폐를 소유한 기업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거래소 지갑을 운영하는 피어테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21년 4월, 당시 기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한 것이 국내 첫 가상화폐 직접 기부 사례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갑을 개설하여 가상화폐를 수령해 즉시 현금화 하였다. 가상화폐 수령 시 고려한 사항은 첫째, 기부하는 기업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을 충족하는 거래소인지, 둘째, 해당 가상화폐의 신용정보사 디지털자산평가 등급이다. 특금법은 2021년 초 제정된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하며, 정보보호나 실명 입출금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국내 가상거래업체 중 4개 거래소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평가하는 기준은 가격변동성과 거래량으로 A등급, B등급 이상 같은 방식으로 내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자사의 1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를 고려대학교에 기부했다. 위믹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생태계 플랫폼에서 쓰이는 가상화폐로,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상장됐다. 고려대는 블록체인 기술을 비롯한 관련 분야 학술연구 활동에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이며, 1년동안 록업(잠금)이 설정되어 당장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운영하는 피어테크는 23일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으며, 모금회는 이날 피어테크 측이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주자 곧장 거래소를 통해 환전.⁸⁾
- 2022년 1월 26일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고려대에 가상화폐 위믹스를 기부. 위메이드 관계자는 "바로 현금처럼 사용하기 보다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관련 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가상화폐 지갑에 잠금을 걸어 기부했다"고 설명.⁹⁾

8) 동아일보 2021.04.27. "'기부' 문 두드리는 가상화폐... 가격변동성 커 모금단체들도 고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27/106624333/1>

9) 매일경제 2022.01.26. "기부도 코인시대...위메이드, 고대에 10억"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80337/>

2) 플랫폼 활용 사례

모금조직에서는 가상화폐로 기부 받는 것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 업체와 협력하여 모금 플랫폼을 만들거나, 기존 업체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모금과 캠페인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① 블록체인 기반 전문 모금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모금 플랫폼은 ‘해피빈’이나 ‘카카오같이가치’와 같이 다양한 조직의 다양한 캠페인을 위한 플랫폼인 경우와 특정 모금단체의 자체 플랫폼인 경우가 있다.

국내 최초 기부 플랫폼 ‘체리’는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정부 과제에 선정되어 2019년 12월 공식 오픈하였다. 운영사는 IT전문업체 이포넷으로 2021년 2월 현재 모금액 약 32억원, 캠페인수는 1,157건, 24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기브어클락’은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 코페이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확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오픈되었다. ‘소셜 액션 네트워크 베이크(Vake)’는 월드비전 사내 프로젝트로 시작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만들어졌다. ‘희망브리지 마트 디앱’은 재해구호협회만의 기부 플랫폼이라면, ‘베이크’는 월드비전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비영리조직이 캠페인을 열 수 있는 플랫폼이다.

- BC카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스타트업 이포넷은 카드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기부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¹⁰⁾
- 국내 기부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기부문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기브어클락’을 구상.¹¹⁾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주)블록체인기술연구소가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인 ‘희망브리지 마크(mark) 디앱’을 출시.¹²⁾

10) 조선일보 2021.12.06. “기부의 계절, 사랑도 블록체인으로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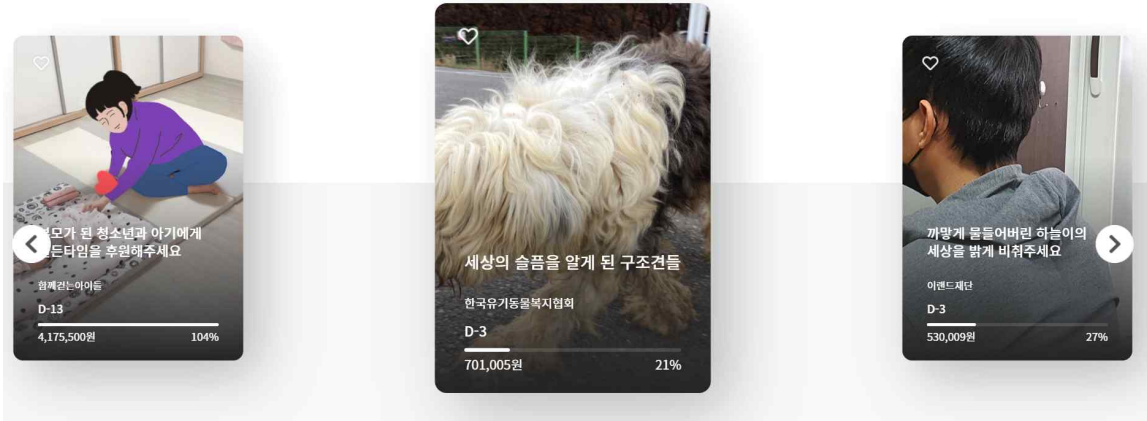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12/06/PG4LJDII2RGGTHP4523BTM6OW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11) 파이낸셜뉴스 2021.06.23. “1%의 대형단체가 후원금 99% 독식.. 블록체인으로 기부문화 틀 바꾸겠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662462>

12) 더퍼블릭 2020.07.16. “희망브리지, 블록체인 기부 앱 출시 기념 기부 참여 이벤트”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76797942484>



[그림1] 체리 희망나눔 플랫폼. 출처: <https://cherry.charity/>



[그림2] 기브어클락

② 캠페인의 활용

기존 공익캠페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거나, 메타버스나 기존 방송채널과 다양한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여 '체리' 앱에서 기부를 받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인 모바일 방송 플랫폼인 '업라이브'와 모금 캠페인에서 암호화폐 기프트를 선물하기 형식으로 기부하도록 하였다.

-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국제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블록체인 기부인 '굿워터 프로젝트'를 진행.¹³⁾
- 공동모금회는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체리'와 메타버스 · 블록체인 기반 모금캠페인을 진행.¹⁴⁾
- 가상화폐(암호화폐) 기프트를 발행하는 아시아 이노베이션스 그룹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암호화폐 공동모금 협약체결, 모바일 플랫폼 업라이브에서 암호화폐 선물기능으로 후원금을 모금.¹⁵⁾



[그림3] 사랑의열매X체리랜드. 출처:Youtube 열매랜드 놀러와 볼래?

- 13)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2020.08.18. "기부 내역 공개·소액 기부 가능... 젊은 세대 참여율 높다 '블록체인 기부' 중간 점검해보니"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7/202008170137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14) 경남신문 2021.12.16. "[트렌드] 나눔의 변신은 무죄 MZ세대 나눔법"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65723>
- 15) 한국경제 2018.06.26. "기프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가상화폐 기부 협약"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15&aid=0003968052>

③ 해외 사례

- 펜실베니아주립대학은 기부를 받은 즉시 NYDIG 라는 제 3의 중개자를 활용해 가상화폐 형태의 기부금을 현금화.¹⁶⁾
- 글로벌 세이브더칠드런과 노키드헝그리 기부금 관리 온라인 플랫폼인 더기빙블록과 제휴를 통해 암호화폐로 기부.¹⁷⁾
- 그린피스는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 '비트페이'를 통해 모금.¹⁸⁾
- 美 구세군은 비트코인으로도 기부금 받기 위해 가상화폐 기부 플랫폼 '엔기븐'과 제휴.¹⁹⁾
- 세이브더칠드런 영국은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지갑주소를 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3개 가상화폐로 기부금 모집.²⁰⁾

3) NFT

① 기부 사례 - NFT 작품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경우

미술 작품이나 영상 등을 NFT화하여 거래시장에서 판매하고 일정한 수익금을 얻은 후, 해당 금액을 비영리단체나 기타 조직들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국내·외 많은 조직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NFT를 통한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 티앤씨재단의 전시 작품 판매금액 기부

지난 2021년 4월에 제주의 포도뮤지엄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전시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전시회 작품 13점을 NFT로 발행하여 해외의 거래 플랫폼 Featured by

16) EBSNEWS 2021.07.01. "코인 투자? 우리는 코인 '기부'"

<https://news.ebs.co.kr/ebnews/allView/60068008/N>

17) 이코노미스트 2021.12.08. "비트코인 투자자가 더 이타적?...암호화폐 시장의 거센 '기부 바람'"

<https://economist.co.kr/2021/12/08/stock/virtualCurrency/20211208175347451.html>

18) 그린포스트코리아 2021.08.20. "[비트코인과 ESG ②] 가상화폐와 ESG 사이에 연결고리 있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020>

19) 아주경제 2020.12.21.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바람 타고...美 가상화폐 거래소, IPO 신청 外"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1073918542>

20) 그린포스트코리아 2021.08.20. "[비트코인과 ESG ②] 가상화폐와 ESG 사이에 연결고리 있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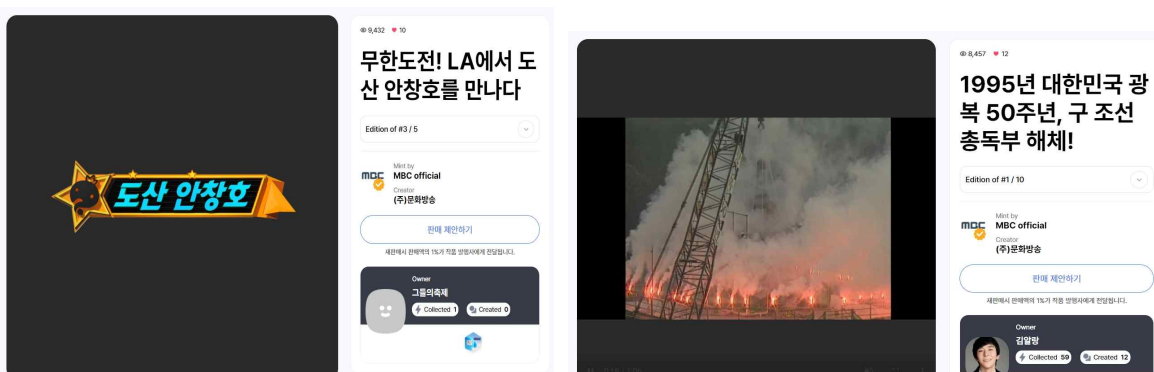
Binance에서 판매하였다. 해당 경매를 통해 재단은 총 4억 7,000만 원의 수익금을 얻었으며, 코로나19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수익금 전액을 굿네이버스에 기부하였다.²¹⁾



[그림4] NFT로 거래된 ‘너와 내가 만든 세상’ 작품. 출처: 매거진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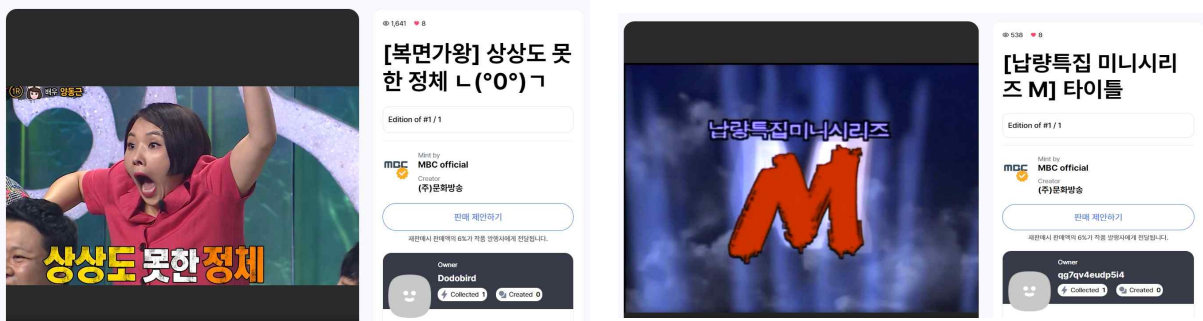
■ MBC의 무한도전 영상 판매 기부

MBC는 ‘MBC의 모든 순간을 NFT로’라는 타이틀로 Archive by MBC를 운영을 시작해 현재 22개의 NFT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 MBC는 지난 2021년 광복절 기념으로 ‘무한도전’ 속 도산 안창호 로고와 구(舊) 조선총독부 해체 모습을 담은 NFT 상품 수익금을 코로나 19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였다. MBC는 자사의 예능방송인 ‘무한도전’에서 나온 ‘무야호~’ NFT 영상을 950만 원에 판매하였으며, 그 외에 음악 예능 ‘복면가왕’에서 패널 신봉선의 ‘상상도 못한 정체 리액션’을 300만 원에, 드라마 ‘M’의 타이틀을 450만 원에 판매하기도 하였다.²²⁾



21) 매거진한경 2021. 08. 30. “티앤씨재단, 메타버스 전시회 이어 NFT 작품 경매 ‘완판’”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825906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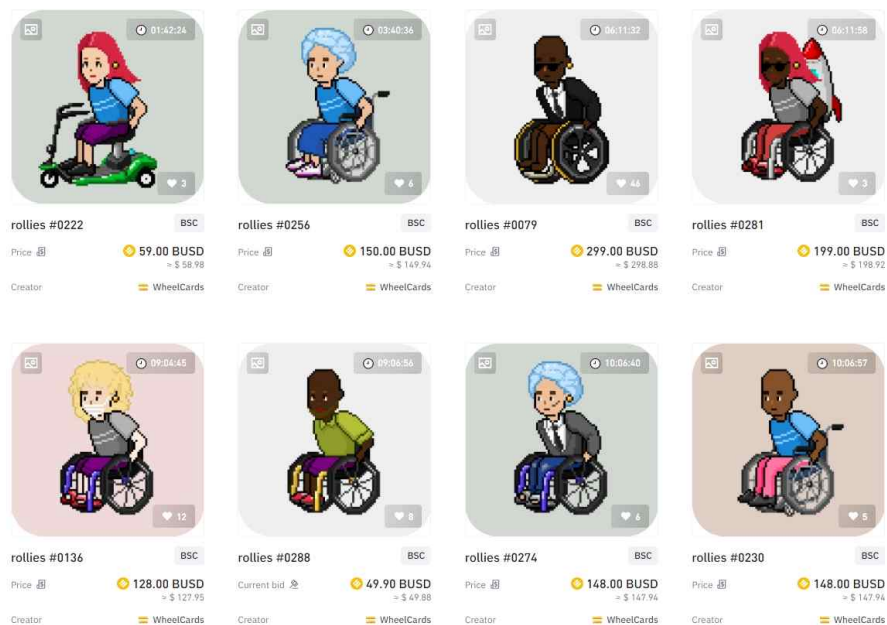
22) 연합뉴스 2022. 01. 04 “MBC, 광복절 기념 NFT 상품 수익 전액 기부”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4151500005>



[그림5] Archive by MBC에서 판매된 NFT 상품. 출처: <https://archivebymbc.com/>

■ 도어랩스의 휠카드, 패럴림픽 출전 선수 사진 판매금액 기부

블록체인 스타트업 도어랩스는 휠체어를 탄 다양한 개성있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담은 휠카드를 국제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에서 판매해 수익금을 베트남 폴브라이트 대학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23)2020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한 14개 종목 선수들의 사진을 담은 NFT를 발행하여 국제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에서 판매하였다. 도어랩스 웹사이트 '카드미(kaard.me)'에서 카카오페이로 구매 가능하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기부한다고 발표하였다. 24)



[그림6] 휠카드. 출처: Binance.com

23) Decenter. 2021.09.07. "NFT 판매해 장애인 장학기금 마련한다...도어랩스, 베트남 폴브라이트 대학 지원" <https://decenter.kr/NewsView/22RDF9S3WP/GZ03>

24) 동아일보 2021.09.02. "휠체어여행 책부터 패럴림픽 NFT까지...하버드 졸업 20대 장애인 청년의 도전[박성민의 더블케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902/109050917/1>

■ 유명인사 기부

국내 배우나 가수, 작가, 정치인 등 많은 유명인사들도 NFT 작품의 수익금을 비영리조직들에 기부한 바 있다. 먼저 배우 강동원은 자신이 출연한 용접 라이브 영상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 수익금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하기로 하였다.²⁵⁾ 김병종 작가 역시 자신의 작품 ‘서설의 서울 대 정문’을 NFT화하여 얻은 수익금 약 1억 322만 원을 유니세프에 기부하였다. 이는 유니세프가 NFT 작품의 후원금을 기부 받은 최초의 사례에 해당하기도 한다.²⁶⁾ 이외에도 가수 마미손과 갈리에라 작가가 NFT 아트 판매금 1,000만 원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으며,²⁷⁾ 이재명 대선후보는 새해 메시지를 담은 카드를 NFT로 만들어 경매 수익금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하였다.²⁸⁾



[그림7] 강동원 테이블 만들기 영상. 출처: 모노튜브



[그림8] 김병종 작가의 NFT 작품. 출처: NvirWorld

② 기부참여 리워드 사례 : NFT 작품이나 카드를 제공하는 경우

■ 굿네이버스 굿워터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NFT 기부인증 카드 제공

굿네이버스는 지난 2020년 7월에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사인 그라운드X와 협력하여 재단의 정기 사업 중 하나인 식수위생지원사업 ‘굿워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은 카카오 디지털 자산 지갑인 클립(Klip)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현금 대신 그라운드X가 발행한 암

25) 세계일보 2021.12.24. “강동원, ‘목공 라이브’ 첫 NFT 발행…수익 전액 모두 유니세프 기부”
<https://m.segye.com/view/20211224507466>

26) 시사매거진 2022.09.07. ““NFT 수익금 전액 기부” 유니세프 최초 사례로 김병종 작가 ‘아너스 클럽’ 등재”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348>

27) 웰페어뉴스 2022.01.11. “래퍼 마미손, 갈리에라 작가와 ‘NFT아트 판매금액’ 기부”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0099>

28) News1 2022. 01. 07 “민주당, ‘이재명 NFT’ 발행…경매 수익금 ‘사랑의열매’ 기부”
<https://www.news1.kr/election/20220309/news/articles/?4547454>

호화페 클레이(KLAY)를 기부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모금진행 과정에서 참여자의 클레이 누적 기부량에 따라 굿네이버스가 발행한 NFT 형태의 기부인증카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모금활동에서 NFT를 활용한 국내 첫 사례에 해당한다.²⁹⁾



[그림9] 굿프렌드(왼쪽), 굿히어로(오른쪽) NFT 카드. 출처: Open Sea

■ 기브어클락

기브어클락의 경우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에게 NFT 기부 뱃지 등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실제로 지급된 사례는 없다.

③ 해외사례

해외에서도 NFT를 활용한 기부는 비영리조직의 새로운 모금방안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그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으로 미국 100대 자선단체 중 약 12%가 비트코인 기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³⁰⁾ 이는 곧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기부방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함. 이에 따라 향후 NFT를 활용한 기부비율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의 NFT 기부사례는 다음과 같다.

29) 동아일보 2020. 07. 16 “굿네이버스, 그라운드X와 코로나19 예방 굿워터 프로젝트 실시”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716/101994740/1>

30) 중앙일보, “미국 100대 자선단체 중 12%, 비트코인 기부받아”, 2020.01.1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80685#home>

▪ **Noora Health (미국 비영리단체)**

- “Save Thousands of Lives”라는 슬로건을 담은 NFT 영상을 제작한 후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인도와 남아시아 지역의 신생아지원사업에 사용³¹⁾

▪ **Vodafone (영국 이동통신사)**

-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NFT로 발행한 후 판매 수익금을 유엔난민기구 (UNHCR)에 기부³²⁾

▪ **NFT4Good (NFT 플랫폼)**

- 아시안계 혐오를 반대하는 ‘AAPI-88’ 캠페인 진행
- 미국 아시안계 유명인사의 모습을 담은 NFT 카드를 발행하여 판매 수익금을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에 기부³³⁾

▪ **트위터 창립자**

- 자신이 쓴 첫 트위터 메시지를 NFT로 발행한 후 판매 수익금을 아프리카 구호단체 ‘기브디렉틀리(Give Directly)’에 기부³⁴⁾



[그림10] 트위터 창립자 잭 도시의 첫 트윗 메시지

31) 더나은미래, “‘NFT’ 활용한 새로운 모금이 온다”, 2021.9.27. <https://futurechosun.com/archives/58860>

32) 연합뉴스, “세계 최초 문자메시지 NFT, 경매서 1억4천만원에 낙찰” 2021.12.22. <https://www.yna.co.kr/view/MYH20211222011200038>

33) <https://opensea.io/collection/aapi-88>

34) 조선일보, “NFT, 모금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2022.01.18.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18/JFWWGLOFHFF3RM2R6RPGX3VJPA/

4. 결론 및 논의

1) 가상화폐 기부 현황

본 보고서는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부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가상화폐 기부’와 ‘NFT 기부’ 키워드를 사용하여 2018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관련 기사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기부를 진행한 곳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였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가상화폐 기부를 다수 진행한 데는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 내 부정적인 시각의 환기 목적이 큰 것으로 보였다. 이와 관련된 특징은 가상화폐를 직접 기부하는 경우 혹은 관련 플랫폼의 이용 및 캠페인을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되었다.

또한, 시세가 수시로 변하는 가상화폐 특성상 가격변동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부 즉시 현금화한다는 원칙을 세운 모금단체가 다수였다. 현재 검색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외 기부처의 기사가 도출되지 않은 것을 비추어볼 때, 만일 가상화폐 거래소 외 기업에서 가상화폐를 기부했다 할지라도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여 기부하였을 가능성이 커 가상화폐가 언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모금단체에서는 가상화폐로 직접 기부 받는 것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 업체와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을 만들거나, 기존업체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모금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상화폐 자체를 기부하거나 이를 현금화하여 기부하는 것 외에도 블록체인 플랫폼 속에서 가상화폐로 진행된 기부사례 및 기부추진 예정 사례가 기사로 보도되었다. 다만, BC카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그리고 스타트업 이포넷이 협업하여 카드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기부 플랫폼은 실현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해외 모금단체에서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모금을 하는 것 외에도 이와 관련된 기부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지갑주소를 공개하거나, 가상화폐 채굴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상화폐 기부 채널 생성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2) NFT 활용 현황

NFT를 활용한 기부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언론을 통해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이 주체가 되어 실제 NFT를 활용하여 기부를 진행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2020년 7월에 굿네이버스가 카카오톡 자회사 그라운드X와 협업하여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에게 리워드 형식으로 NFT 카드를 발급한 바 있으나, 이후 굿네이버스

에서 진행한 다른 NFT 관련 기부활동은 파악되지 않는다. 2020년에 비해 현재의 NFT 시장이 훨씬 더 커졌는데, 왜 그 이후에 NFT를 활용한 기부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을 통해 모금활동을 실시하는 비영리단체는 상당 부분 존재하였으나, 그중 NFT를 활용한 단체들은 거의 없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많은 비영리단체들의 모금활동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NFT 기부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NFT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NFT 시장이 세계적으로 최근 1년 새 급속히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만큼, 이를 활용한 새로운 기부전략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3) 가상화폐와 NFT 활용 가능성

① 시장의 확대

최근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기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기부 플랫폼 ‘더 기빙 블록’이 2021년 12월 개최한 가상화폐 기부 캠페인 ‘Crypto Giving Tuesday’ 행사의 모금액은 약 24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600% 증가하였다.³⁵⁾ 또한, 비영리기관인 피델리티 채리티블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부 금액이 5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억5000만 달러의 가상자산이 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³⁶⁾.

② 세금 혜택

이처럼 미국에서 가상화폐 기부가 증가한 배경에는 수년전 도입한 ‘자본이득세’가 있었다. 자본이득세는 가상화폐 거래 시세 차익에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37%의 세금을 부과한다.³⁷⁾ 따라서 가상화폐로 기부를 하게 되면 세제혜택이 주어져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기부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용주의 퇴직연금 제도 이외의 투자 가능자산을 최소 25,000달러 이상 보유한 미국 투자자 1,216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피델리티 채리티블의 설문조사(Fidelity Charitable, 2021)에서 가상화폐 기부경험이 있는 투자자의 54%가 기부 동기로 ‘세제 혜택’을 응답하였다. 조사대상 중 가상화폐로 기부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절세목적으로 기부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법제도 측면에서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기부자들로 하여금 세금 절감 측면에서 가상화폐를 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도 가상화폐 기부 활성화

35) 한국경제TV 2021.12.27. "가상화폐 기부천사 급증"...美 가상화폐 기부금 전년비 약 600%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12270103&t=NN>

36) 코인데스크코리아 2021.12.27. "미국 가상자산 기부 크게 늘었다..밀레니얼의 디지털 자산 확산 깊어져"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07>

37) 조선일보 2021.12.23. "폭증하는 가상화폐 기부... 투명해서 끌리고 세금 아껴 더 끌린다"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12/23/KFIMOCX4YJBNVJTA5RR23LH6RQ/?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화의 한 가지 장애물로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의 개정³⁸⁾으로 2023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화폐 수익에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기에³⁹⁾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절세 혜택을 노린 가상화폐 기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모금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제도 적용 이전에 가상화폐 기부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여 선도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③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과 확장성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가상화폐와 NFT 기부는 기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간주되어 기존에 기부를 하지 않던 이들까지 기부자로 유입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한,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기부방식으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높으며 디지털 자산은 앞으로 중요한 자금원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모금기관들은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과 접촉하여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동안의 모금활동은 대부분 기부자가 일정 수준의 현금이나 현물을 아무런 대가없이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기부방식이 점차 다양화되면서 기부자의 참여나 재미 등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모금활동이 증가하고 있다(Ex: 아이스버킷 챌린지 등). NFT 기반의 모금의 경우 특정 캠페인에서 참여자들이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참여자들에게 NFT 기념품이나 디지털 증서를 발급하기도 한다. 이러한 NFT만의 독특한 특성이 기부자들의 참여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모금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를 NFT화하여 판매하거나 기부자를 위한 특별한 예우 선물을 할 수 있다. 특정 행사를 위한 초대권이나 입장권에도 활용 가능하다. 우리 조직 홍보대사의 그림, 사진이나 영상을 NFT화하여 팬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④ MZ세대의 참여

가상화폐와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디지털 친화적인 2030 세대에게 익숙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NFT를 활용한 기부가 활성화된다면 청년 세대의 기부참여 수준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20년에 진행된 그라운드X와 굿네이버스의 블록체인 기부 캠페인의 경우, 참여자의 과반 이상(57.4%)이 2030 세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⁴⁰⁾

38) 국법령정보센터 : 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law.go.kr/lisInfoP.do?lsiSeq=237497&lsId=&efYd=2023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39)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40) 이코노미스트 2021. 12. 29. “이제 기부도 NFT로 한다”...기부금 전달 기록돼 '투명성' 보장“

<https://economist.co.kr/2021/12/29/stock/stockNormal/20211229191834126.html>

4) 논의와 해결 과제

① 현금 외 자산 기부에 대한 심리적, 행정적 장벽

가상화폐 기부를 받기 원하는 기관은 대부분 가상화폐의 특성으로 인해 기부금의 가치가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기부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법제도적인 측면 외에 현재까지 모금기관에서 가상화폐 기부를 활발히 받지 못한 이유로는 가상화폐 가치 급변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는 특히 가상화폐 기부금의 현금화 시점 이슈로 인한 어려움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모금기관에서는 가상화폐 기부 의사가 있는 곳을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여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로 기부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가상화폐 기부 채널이 다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이라 예측된다. 실제 국내 정치권에서 NFT 수익금을 가상자산 형태로 기부하려고 했으나 국내에서는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고 한다.⁴¹⁾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기부가 낫다고 판단”한다는 모금조직 담당자 인터뷰도 있었는데, 지나친 위험회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현금이나 현물 외 주식으로 조차 기부 받은 경험이 없는 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질 것이다. 다른 한 측면으로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 기부하는 기업이 어디냐에 따라 모금단체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고려사항이다.

② 투명성에 대한 기대?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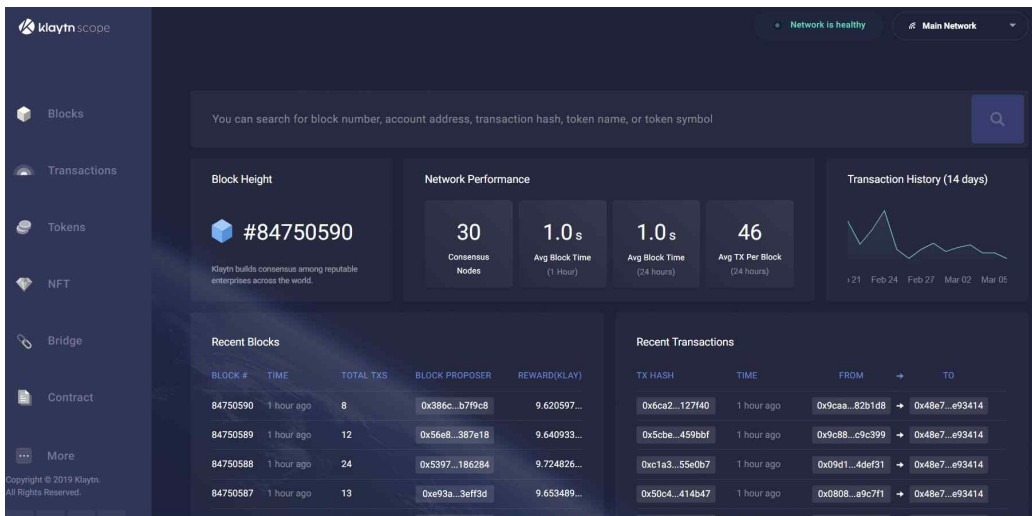
가상화폐와 NFT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정보 공유와 전달 과정이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며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나 NFT를 모금에 활용할 경우 모든 거래 내역이 참여자들에게 고스란히 공개되며, 이는 투명한 자금 운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기부 모금 현황부터 어느 곳에 얼마나, 어떻게 금액이 사용되었는지를 기부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투명하고 간편한 기부가 가능하다.”⁴²⁾ 이와 같은 특징은 평소 ‘기부단체 불신’ 등을 이유로 기부를 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금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익활동에 사용되어 왔는데 사실일까? 블록체인 자체가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부자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웹기반의 모금 플랫폼과의 차별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거나, 투명성의 확보한 성과를 주목받을만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추측건대 그 이유는 첫째, 내가 기부한 돈의 경로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41) 중앙일보, “이재명 올라탄 NFT 열풍…‘선구자’ 박영선. 이광재가 밝힌 매력”, 2022.01.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248#home>

42) 효성 FMS 블로그 2021. 10. 05. “[비즈 트렌드] ‘가슴이 웅장해지는’ MZ세대가 이끈다! 새로운 기부 문화 트렌드” https://www.hyosungfms.com/fms/promote/fms_news_view.do?id_boards=13654

좋은 톨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기부금 운영상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부금의 흐름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낸 세금이 다리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고속도로를 내는 곳에 사용되었는지 꼬리표를 붙여 알도록 하겠다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돈의 흐름을 추적 가능한 경우는 현물 전달이나 전달받는 사람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둘째, 일반인들이 현재 블록체인 기반 기부과정을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경향이 있다. 또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웹이나 모바일 기반의 ‘해피빈’ 이나 ‘같이가치’와의 차별점이 보이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아니더라도 기부단체들은 수많은 행정보고와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꼭 블록체인을 추가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가장 먼저 생각해볼 문제이다. 기부자와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투명성’은 낱말이 공개한 회계정보와 기부금의 추적보다는 기부단체와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다는, 자신이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11] 프로젝트 모금 투명성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모금 거래 기록.

출처: <https://scope.klaytn.com/>

③ 법제도와 환경 이슈

NFT의 경우 저작권과 소유권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기준 등은 법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탄소배출 문제도 고려사항이다. 실제 BTS NFT가 발행된다는 소식에 일부 BTS 팬들이 탄소배출 문제로 보이콧을 선언했다.⁴³⁾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현금화 시점과 과세처리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와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

43) 조선경제. 2021.12.31. “BTS, 제발 NFT 진출 마세요” 보이콧 거론하며 반발하는 아이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2/31/KSU462ZREFHHVM2QLZY2JA5TSA/



별첨

-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 NFT 거래소



블록체인 기반 국내 기부 플랫폼

체리(Cherry) <https://givecherry.org/>

-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 IT전문업체 이포넷이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정부 과제에 선정되어 2019년 12월 오픈
-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다양한 기부단체와 개인에게 직접 지원. 토큰 충전으로 기부 가능

베이크(Vake) <https://vake.io/>

- 월드비전 사내 혁신 프로젝트로 시작되어 월드비전, 다국적 전문가 조직 Weave(위브), 온라인 협업 테크 솔루션 개발사인 CAN(캔랩)이 협업하여 운영
- Value(가치)+Make(만들다)의 조합으로 소셜 액션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자 오픈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 기부 뿐 아니라 액션을 위한 게시판이 마련되어 액션 기획, 진행, 활동이 공유됨

기브어클락 <https://www.giveoclock.com/intro/home>

-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 코페이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확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오픈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단체들과 협업하여 기부 캠페인을 진행
- 대형모금단체 기부 편중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공익활동 조직 지원에 중점
-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에게 NFT를 지급하여 모금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계획(Ex: 기부왕, 출석왕 선정하여 NFT 기부뱃지 제공)

희망브리지 마트 디앱

- 재해구호협회의 기부 플랫폼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순번	이름	홈페이지
1	업비트	https://www.upbit.com/home
2	빗썸	https://www.bithumb.com/
3	코인원	https://coinone.co.kr
4	코빗	https://www.korbit.co.kr/
5	에이프로빗	https://www.aprobit.com/
6	플라이빗	https://flybit.com/
7	지닥	https://gdac.com/
8	후오비 코리아	https://www.hb.co.kr/
9	고팍스	https://www.gopax.co.kr/
10	오아시스 거래소	https://oasisexc.com/
11	게이트코리아	https://www.gate.io/
12	코인레일	https://coinrail.co.kr/
13	코인플러그	https://coinplug.com/
14	한빗코	https://www.hanbitco.com/
15	코인빗	https://www.coinbit.co.kr/



NFT 거래소

1) 클립 드롭스(Klip Drops) <https://klipdrop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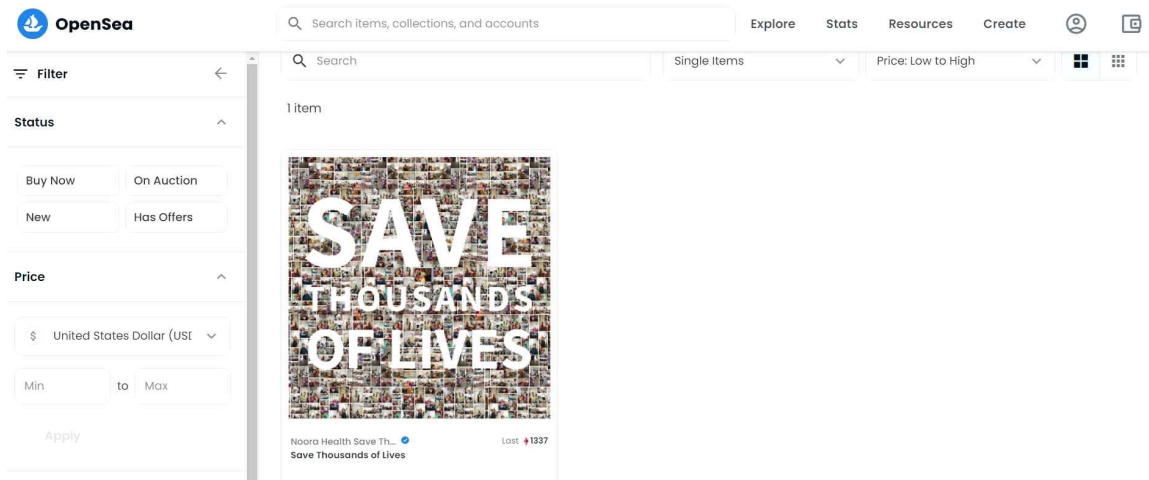
클립 드롭스(Klip Drops)는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2021년 7월에 출시한 NFT 거래 플랫폼이다. 카카오프로젝트 접근이 가능하며 다양한 NFT 예술작품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다. 클립 드롭스는 출시된 지 반년 만에 약 114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는 등 국내 주요 NFT 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⁴⁴⁾

2) 엔버월드(Nvirworld) <https://nvirworld-nft.com/>

엔버월드(Nvirworld)는 NFT 글로벌 통합서비스 플랫폼으로 국내의 많은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NFT로 발행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NFT 작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여러 단체들에 기부하는 등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에 NF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 엔버월드는 광복절 기념으로 ‘독도는 한국땅’ 캠페인을 진행하여 독도 NFT 작품을 경매에 부쳤으며, 6,865만 원의 수익금 전액을 (사)대한민국독도협회와 독도수호국제연대·독도아카데미에 기부하였다.⁴⁵⁾ 이외에도 김병중 작가의 NFT 작품이 본 플랫폼에서 1억 322만 원에 판매되어 유니세프에 기부되었다.⁴⁶⁾

3) Open Sea <https://opensea.io/>

가장 널리 알려진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 해외의 많은 비영리조직들이 모금활동 과정에서 본 플랫폼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Noora Health의 신생아 지원사업이나 NFT4Good의 아시아계 혐오 반대 캠페인 ‘AAPI-88’, 등이 Open Sea에서 판매되어 기부금으로 활용되었다.



[그림 12] Noora Heath의 신생아지원사업 NFT. 출처:Open Sea

44) 전자신문 2022. 01. 26 “[ET 뉴스픽!]카카오 NFT거래소 '클립 드롭스', 반년 만에 100억 돌파” <https://m.etnews.com/20220114000122>

